

## 간호학생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sup>1</sup>, 김윤수<sup>2\*</sup>

<sup>1</sup>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역보건사업부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on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Yu-Jin Lee<sup>1</sup>, Yun-Su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Community Health, Seoul Health Found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조사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하는 D대학교와 S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04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 분산분석(ANOVA),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3.60점, 주관적 규범은 2.69점,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는 각각 2.62점, 2.97점이었으며,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 모두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beta=.185, p<.001$ ), 주관적 규범( $\beta=.167, p=.005$ ), 지각된 행위통제( $\beta=.161, p=.007$ )와 학년( $\beta=.103, p=.038$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학대를 접했을 때 적극적 개입을 위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o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The subjects were 404 nursing students at D and S universities in G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th, 2017 to January 26th,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the SPSS / WIN 22.0. The results show that perception of elder abuse had a score of 3.60, subjective norms had a score of 2.69,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attitude had scores of 2.62 and 2.97. Perception of elder abuse, subjective norms, and behavioral control and attitud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lderly nursing education.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were perception of elder abuse, subjective norms, and perceptions of behavioral control and gr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wareness, subjective norms, and behavioral control for the intervention of elder abuse. We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 of the elderly is important for the intervention of elder abuse.

**Keywords** : Attitude, Elder abuse, Perceived Behavior Control, Perception, Subjective Norms

\*Corresponding Author: Yun-Su Kim(Seoul-Health Foundation)

Tel: +82-2-2126-4725 email: venus8708@seoulhealth.kr

Received February 28, 2018

Revised March 26,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8%이며, 2045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 학대는 사례건수 증가와 다양한 양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학대 등을 포함한다[2]. 2014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 대상자의 9.9%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학대 형태는 정서적 학대, 방임,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학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 순이었다[3]. 그러나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의 노인 학대 신고 접수는 12,009건으로 노인실태조사의 학대를 경험했다는 노인들의 답변에 비해서는 매우 작았다[4]. 학대경험과 신고사례의 차이를 고려해도 매우 작은 신고 건수로,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과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학대 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개입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특히 간호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노인을 가장 먼저 접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접근성이 높고,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관찰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예방과 중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일을 하면서 노인 학대라고 인식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에서도 의료인은 2015년 1.2%, 2016년 0.6%로 매우 작았다[4].

국내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 학대에 대한 개입 의도 영향 조사가 보고되었다[5-6]. 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위의 의도이며, 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받는다[7]. 특히 태도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기대치이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를 하는데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7-8]. 국내에서는 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 학

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간호학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이고, 노인 학대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은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조사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노인 학대를 접하는 간호사의 태도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하는 D대학과 S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요인의 수가 13개일 경우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0.15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189명이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문항은 총 70문항으로 표준화에 필요한 최소표본수를 문항 당 5명 이상으로 산정하였을 때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설문지 작성 시 불완전한 답변이나 작성 포기 등을 고려하여 4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4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김미혜, 이선희(1998)가 개발한 노인 학대 측정도구와 전길량, 송형애(1997)가 개발한 노인학대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임봉호(2001)가 38문항으로 개발한 노인 학대 인식 도구를 요인 분석해서 언어적 학대 1문항을 제외시킨 김은정(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9-12]. 이 도구는 총 37문항으로 정서적 학대 10문항, 언어적 학대 5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재정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은정(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언어적 학대 .795, 신체적 학대 .846, 정서적 학대 .865, 방임 .869, 재정적 학대 .898이었으며,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6이었다[12].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언어적 학대 .869, 신체적 학대 .950, 정서적 학대 .859, 방임 .878, 재정적 학대 .906으로,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9이었다.

### 2.3.2 노인 학대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

노인 학대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는 박혜영, 최은정, 이은남(2013)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조윤경(2014)이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도구가 4문항이었으나 연구대상자가 학생이어서 해당되지 않는 직장 동료, 수간호사와 관련된 2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으며, 1점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6,13]. 태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6,13]. 지각된 행위통제는 Feng(2003)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Child Abuse Report Intension Scale: CARIS)를 김진선(2005)이 번역하고, 조윤경(2014)이 노인에게 적합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6,14-15]. 7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조윤경(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주관적 규범 .74, 지각된 행위통제 .73, 태도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주관적 규범 .874, 지각된 행위통제 .768, 태도 .803이었다[6].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 학과장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하고 자료수집 기간을 조율한 후 연구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개별 수업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음과 서면동의서 내용, 설문지 작성에 20분 정도 소요됨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수거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보관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음과 서면동의서 내용을 설명하였다. 수거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보관함으로써,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의 수준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의 수준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04)

Variable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51	12.6
	Female	353	87.4
Age(years)*	20-29	381	96.7
	30-39	8	2.0
	40≤	5	1.3
grade	1	121	30.0
	2	94	23.3
	3	104	25.7
	4	85	21.0
Religion	Christianity	117	29.0
	Catholic	41	10.1
	Buddhism	18	4.5
	No religion	225	55.7
	Others	3	0.7
Living with the elderly*	Yes	46	11.4
	No	356	88.6
Significance of reporting duty*	Yes	397	98.5
	No	6	1.5
Help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of the reporting duty system*	Yes	370	92.3
	No	31	7.7
Education of the subjects related to geriatric nursing*	Yes	156	38.9
	No	245	61.1
Education or seminar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Yes	103	25.6
	No	300	74.4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 abuse and reporting*	Yes	337	83.6
	No	66	16.4

\*: variables with no entry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았다. 노인 학대 예방의 신고의무 중요성( $t=4.736, p<.001$ ),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 $t=2.465, p=.014$ ), 노인 학대 및 신고에 관한 교육프로

그램의 필요여부( $t=3.897, p<.001$ )에서 노인 학대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신고의무제도의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도움여부( $t=2.228, p=.026$ ),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 $t=3.53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나이( $F=4.745, p=.009$ ), 학년( $F=5.406, p=.001$ ), 신고의무제도가 노인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 $t=4.393, p<.001$ ),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 $t=5.803, p<.001$ ),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은 경험여부( $t=4.05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는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 $t=3.351, p=.001$ ),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은 경험여부( $t=2.463, p=.01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3 대상자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간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Table 3과 같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규범( $r=.604, p<.001$ ), 지각된 행위통제( $r=.684, p<.001$ ), 태도( $r=.871, p<.001$ )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 $r=.559, p<.001$ ), 태도( $r=.297, p<.001$ ),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 $r=.265, p<.001$ )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3.4 대상자의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과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예측요인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1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8-1.433으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은 유의미했으며( $F=15.538, p<.001$ ) 영향요인으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beta=.186, p<.001$ ), 주관적 규범( $\beta=.167, p=.005$ ), 지각된 행위통제( $\beta=.161, p=.007$ )와 학년( $\beta=.103, p=.038$ )이 관련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14.2%였다.

**Table 2.** Perception,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attitude to elder abus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04)

Variables		Perception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ttitude		
		Mean±SD	t (F) Scheffe	p	Mean±SD	t (F) Scheffe	p	Mean±SD	t (F) Scheffe	p	Mean±SD	t (F) Scheffe	p
Gender	Male	134.94±10.74	1.101	0.271	5.66±1.24	1.628	0.104	18.84±3.16	1.264	0.207	40.90±9.70	-1.021	0.308
	Female	132.78±13.30			5.34±1.33			18.26±3.03			41.74±5.58		
Age(years)	20-29a	133.01±12.77	1.535	0.217	5.41±1.33	1.382	0.252	18.44±3.04	4.745 a>b	0.009	41.74±5.56	1.272	0.281
	30-39b	137.00±8.97			4.62±1.40			15.50±2.20			38.62±2.87		
	40≤c	142.75±1.89			5.40±0.89			16.40±3.13			42.25±3.30		
grade	1 <sup>a</sup>	132.19±12.90	0.524	0.666	5.34±1.35	0.314	0.815	18.43±3.16	5.406 b<c b<d	0.001	41.06±5.33	2.297	0.077
	2 <sup>b</sup>	132.93±12.80			5.34±1.18			17.26±2.58			41.07±4.87		
	3 <sup>c</sup>	134.37±15.06			5.37±1.46			18.83±3.55			41.72±6.04		
	4 <sup>d</sup>	132.83±10.49			5.50±1.25			18.75±2.40			42.93±5.45		
Religion	Christianity	134.02±13.12	0.680	0.606	5.43±1.43	0.448	0.774	18.59±3.13	0.644	0.632	41.81±5.45	0.228	0.923
	Catholic	132.44±14.29			5.58±1.18			18.00±3.00			42.07±5.26		
	Buddhism	133.88±14.48			5.16±1.24			17.94±2.46			40.68±4.61		
	No religion	132.48±12.67			5.34±1.27			18.27±3.01			41.53±5.51		
	Others	142.33±5.13			5.33±3.05			20.00±6.55			41.66±12.50		
Living with the elderly	Yes	134.73±15.18	0.930	0.353	5.60±1.38	1.145	0.253	18.73±3.75	0.900	0.369	42.50±6.03	1.081	0.281
	No	132.81±12.72			5.35±1.31			18.29±2.94			41.52±5.42		
Significance of reporting duty	Yes	133.38±12.62	4.736	<.001	5.39±1.31	1.649	0.100	18.37±3.05	0.333	0.079	41.66±5.48	0.837	0.403
	No	106.40±15.10			4.50±1.76			16.16±1.94			39.60±5.36		
Help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of the reporting duty system	Yes	133.19±12.68	0.971	0.332	5.42±1.30	2.228	0.026	18.53±3.03	4.393	<.001	41.74±5.51	1.874	0.062
	No	130.71±16.90			4.87±1.43			16.03±2.44			39.75±4.17		
Education of the subjects related to geriatric nursing	Yes	135.01±11.57	2.465	0.014	5.67±1.30	3.537	<.001	19.41±2.99	5.803	<.001	42.81±5.84	3.351	0.001
	No	131.68±13.72			5.20±1.31			17.66±2.88			40.90±5.13		
Education or seminar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Yes	134.90±13.72	1.613	0.108	5.54±1.28	1.476	0.141	19.36±2.75	4.057	<.001	42.81±5.86	2.463	0.014
	No	132.46±12.73			5.32±1.33			17.96±3.06			41.22±5.28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 abuse and reporting	Yes	134.15±11.78	3.897	<.001	5.40±1.33	0.720	0.472	18.36±2.94	0.296	0.768	41.80±5.34	1.364	0.173
	No	127.30±17.00			5.27±1.30			18.23±3.61			40.77±6.08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attitude to elder abuse

Variables	perception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ttitude
Perception	1	.604 ( $<.001$ )	.684 ( $<.001$ )	.871 ( $<.001$ )
Subjective Norms		1	.559 ( $<.001$ )	.297 ( $<.001$ )
Perceived Behavior Control			1	.265 ( $<.001$ )
Attitude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 elder abuse

Factor	B	SE	$\beta$	t	p	VIF
perception	.082	.022	.186	3.707	$<.001$	1.028
subjective Norms	.684	.242	.167	2.833	.005	1.432
perceived Behavior Control	.286	.105	.161	2.720	.007	1.433
Grade	.506	.243	.103	2.083	.038	1.008

$R^2=.152$ , Adjusted  $R^2=.142$   $F=15.538$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의 수준을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학생과 연령과 지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이고, 나아가 노인 학대를 접하는 간호사의 태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반대학생과의 비교보다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노인 학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다[16-19]. 간호 학생을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60점이었다. 이는 2010년 5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한 고정미(2010)의 연구결과인 3.07점보다 높고, 일개 상급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조운경(2014)의 연구결과인 3.56점과 유사하였다[6,16].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2.69점으로 주변 사람들이 노인 학대에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운경(2014)의 2.86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는 각각 2.62점, 2.97점으로 나타나 조운경(2014)의 2.43점, 2.82점보다 높았다[6].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주관적 규범은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가 현재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규범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는 이전 연구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과 정부 정책 등으로 2014년 연구결과보다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받은 대상자, 노인 학대 및 신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개 상급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정미(2010)의 연구와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조사한 Bang(200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16,20].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도구의 차이가 있으나 종교, 노인문제관심도, 지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종교는 차이가 없고 노인 간호 수강 경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에 의한 차이와 유사하였다[21].

본 연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신고의 무제도의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도움여부,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 특성과 상관이 없었다는 조운경(2014)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6]. 그러나 조운경(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두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6]. 노인 학대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나이, 학년, 신고의 무제도가 노인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의 교육여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은 경험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운경(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6].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

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와 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적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었으며, 이에 간호 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6].

본 연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6,16,22-23]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학년이 관련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14.2%였다. 이는 조윤경(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행위에 대해 연구한 박혜영(200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6,13].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을 때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정혜선(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24]. 태도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어 형성되면 대상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반응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25].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식과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26].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식,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가 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증가시키면 태도와 중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호사는 노인복지법을 통해 법적으로 노인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문가로서 노인 학대에 개입해야 한다[27]. 본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영향을 미치고,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받은 간호학생에게서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학대를 접했을 때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인 간호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학대 중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구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고, 주관적 규범의 경우 간호학생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하여 제한점이 있으므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두 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점이 있기에,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7 Elderly people statistics, Statistics Korea,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63362](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63362), (accessed Dec. 2, 2017).
- [2] M. H. Kim, K. J. Kwon, Y. O. Lim, Y. H. Lee, Screening Scale for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4, pp. 819-842, 2006.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National Survey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ecember, 2014, Report no. : 2014-61.
- [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Report on the Status of Elderly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June 2017, Report no. : 11-1352000-000267-10.
- [5] C. U. Oh, H. K. Kang, A Study on Visiting Caregiver's Perception of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638-6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638>
- [6] Y. K. Cho, Influencing Factors on Nurses' Intention of Intervening in Elder Abuse[Master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4.
- [7]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7, no. 2, pp. 179-211, 1991.  
DOI: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8] S. W. Lee, J. H. Kim, B. S. Lee, E. H. Lee, M. S. Jung, I. Understanding of Nursing Theory, 462, Sooonsa, 2009.
- [9] M. H. Kim, S. H. Lee, A Study on Measuring Tools for Elder Abuse, *Social Welfare*, no. Spring, pp. 87-110, 1998.
- [10] G. Y. Jun, H. A. Song, A Study on Elder Mistreatment 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3, pp. 83-94, 1997.
- [11] B. H. Lim, A Study on Degree of Perception on Elderly Abuse Differentia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Master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1.
- [12] E. J. Kim, A Study on Nurses' Perception of Elder Abuse[Master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1.
- [13] H. Y. Park, E. J. Choi, E. N. Le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Emergency Room Nurs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26, no. 2, pp. 1-11, December, 2013.

DOI: <https://doi.org/10.4266/kjccm.2013.28.1.1>

- [14] J. Y. Feng, M. Levine,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Child Abuse & Neglect*, vol. 29, no. 7, pp. 783-795, 2005.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4.11.006>
- [15] J. S. Kim, K. S. Park.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1, no. 2, pp. 211-220, April 2005.
- [16] C. M. Ko, A Study of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1, pp. 109-118, February 2010.
- [17] J. H. Park, G. H. Youn, Elder Abuse in the Aging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0, pp. 113-134, 2001.
- [18] K. J. Lee, H. G. Le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toward Elder Abus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38, pp. 209-229, 2007.
- [19] K. M. Morrison, H. S. You, R. B. Mills, Young Adult Attachment Styles and Perceptions of Elder Abus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 15, no. 3, pp. 163-184, September,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06748708812>
- [20] H. M. B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13, no. 1, pp. 211-234, 2009.
- [21] S. M. Kwon, M. S. Kwon, O. G. Kwag,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29-113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29>
- [22] K. K. Kim, Development of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on Human Rights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4, pp. 463-472,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4.463>
- [23] M. S. Song,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 Nursing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vol. 16, no. 1, pp. 78-100, 2007.
- [24] H. S. Jeong, Attitude on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3, pp. 15-28,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3.015>
- [25] E. Phil(2001), Attitudes and Persuasion, Psychology Press (UK), pp. 1-11.
- [26] S. O. Kim, H. S. Oh, M. S. Wang,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63-170,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163>
- [27]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2017, web site: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accessed Aug. 2, 2017).

## 이 유 진(Yu-Ji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교육

## 김 윤 수(Yun-Su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8년 1월 ~ 현재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역보건사업부 연구위원

<관심분야>

보건정책, 만성질환, 교육